

익산시, 문화유산 '나바위성지' 정비

한국인 최초 사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맞아 라파엘호 제작·전시·각종 기념행사 개최

익산시는 문화유산인 '나바위성지' 정비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1821~1846) 탄생 200주년을 맞아 망성면 나바위성지 일원에 목선인 라파엘호를 제작·전시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라파엘호는 1845년 김대건 신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페레를 주교, 다블뤼 신부와 함께 현 나바위성지(망성면 화산리)로 입국하면서 타고 온 배다.

시는 제주도 용수성지에 고증 복원된 라파엘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 한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설계를 완료했다.

김대건 신부 탄생일인 8월까지 제작을 마친 후 나바위성지를 찾는 관광객과 성지 순례객들에게 공개하고 이후 체험공간, 미사 등 행사 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천주교 전주교구와 함께 8월부터 10월까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토크콘서트, 음악회, 착지행사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라파엘호 재현으로 나바위성지는 한국 천주교회사와 지역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천주교 성지 정비를 통해 성지 순례길 등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탐방 여건의 확충과 지역 문화유산의 관광자원



익산시는 문화유산인 '나바위성지' 정비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사진은 나바위성지)

화로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건 신부는 사상과 영성, 한국천주교회의 상징성과 영향력을 인정받아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됐다.

나바위성지는 사적 제318호로 김대건 신부가

최초로 상륙한 곳을 기념하기 위해 1897년 화산교회가 건립됐으며 이후 1916년 개축하면서 지붕은 한옥양식, 벽체는 서양식의 건축양식을 절충한 건축물로 근대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남원시, 청소년 대상 한복교육 본격화

남원교육문화회관·남원시관광협의회와 업무협약

남원시가 한복문화도시 남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한복교육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11일 시청에서 전북도교육청 직속 기관인 남원교육문화회관(관장 김인수), 남원시관광협의회(위원장 윤영복)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한 한복교육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김태훈 원장)의 지원으로 추진됐던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14개교 454명 교육 참여)'의 큰 호응과 참여 교사들의 중학교 교육과정에 한복교육을 포함해 달라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남원시는 이번 협약으로 남원교육문화회관과 함께 3월부터 연말까지 연중 체계적인 교육생 모집과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전북동부권(남원, 임실, 순창, 장수)학생까지 한복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남원시관광협의회는 관광자원과 연계해 남원시민의 특화형 한복체험프로그램인 '나는 한복 입고 달린다'를 관광투어와 남원에온 일대에서 4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며, '나는 한복 입고 달린다'는 춘향전 속 인물들을 재현한 연극 배우의 안내를 받아 체험자가 '문재필이형 마패투어'와 함께 관광지를 따라 한복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때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도 기대를 모을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밖에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을 적극 활용, 전통자원의 콘텐츠의 재생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찾아가는 한복교육(특화형, 32차시) ▲고사기간 및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한복교육을 추진하는 등 한복거점도시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양인환 관광과장은 "거점도시 남원의 한복문화 교육은 지역 교육기관과 함께하는 협업모델에서부터 출발한 남원만의 현장체험형 한복교육"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에게 한복교육에 많은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봄이 오는 소리'

19일 길놀이 풍물·버나 족방울 서커스 등 전통 연희 집대성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민들에게 2021년 새봄을 맞아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자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봄이 오는 소리' 공연을 마련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곡을 떠돌던 전문 유랑 집단을 모티브로 한 '조선 서커스 솟대쟁이패'의 길놀이 풍물을 시작으로 버나 족방울 서커스, 삼판(쌍줄 놀음 등 기예에 가까운 전통 연희를 집대성한 한류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국악인 김아영이 선보이는 '너영너영', '성주풀이', '가야지' 등의 민요한마당과 가수 진성이 부르는 '안동역에서', '보릿고개', '태극을 걸지마' 등의 노래가 오랜만에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더해줄 예정이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50%의 객석을 거리두기 좌석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문진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16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문체부, 6월 17일까지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지닌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실현하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며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 지정은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 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 7일부터 17일까지 문체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달 23일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제

4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관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출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6월 중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서면 심사를 거친다. 현장 평가를 진행할 도시를 선정해 7월부터 8월까지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조성계획을 보완해 10월 중 최종 발표회를 실시한다.

발표회 결과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예비 문화도시들은 1년 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뒤 2022년 10월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제1회 고창신재효문학상' 10월 16일까지 전국 공모

'제1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전국 공모가 시작했다. 고창을 소재로 하는 창작장편소설 분야로, 당선작에는 대한민국 문학상 최고 수준에 상당하는 5,0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수많은 작가가 참여해 고창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향후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도 제작돼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에 고창을 알리는 문화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접수기간은 10월 16일까지며, 최종당선작은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응모주제는 고창의 역사·자연·지리·인물·문화 등을 소재와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 또는 표절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 포함된 작품 등은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시상 후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고창신재효문학상의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과(063-560-2457)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